



대우조선해양 VLCC 옵션에서 신조선가 7% 상승

코멘터리

나쁜 뉴스로 먼저 시작하지만...

① Yang Ming의 12,000teu 10척 입찰에서, 용선사로 Costamare와 Shoei가 각각 5척씩 선정되었는데, Costamare는 중국 양지장에, Shoei는 일본 이바마리 조선사에서 각각 건조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올해 Zodiac과 CMA-CGM에서 이겼지만, Yang Ming의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은 실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사들은 현대상선의 20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② 이외에 Yang Ming의 2,800teu 입찰도 함께 진행 중인데, 여전히 대만 CSBC, 이마라리, 현대미포조선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조선가 상승세가 완연합니다...

③ 지난주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의 Hunter VLCC 3척 추가 수주는 5호선~7호선인데, 이번 계약과 함께 추가로 옵션이 3척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5호선~7호선의 척당 \$85.5m보다 7.6%나 높은 \$92m에 행사가능 합니다.

옵션만기는 8월15일어어서 행사여부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신조선가 인상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조선가 상승은 올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입니다.

④ 신조선가 상승을 압박하는 한국의 자국 발주 프로그램이 또 추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Fuel 벌크선(20만dwt) 2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힙니다.

또한 2025년까지는, 이 2척을 포함해 LNG 추진선을 공공부문에서 30척, 민간 부문에서 70척 등, 총 100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작아진 캐파에, 발주가 늘어 잔고는 차고 있고, 장차 한국의 자국 발주 계획도 등장했습니다. 선주들은 투기발주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추선 시장에서 손바뀜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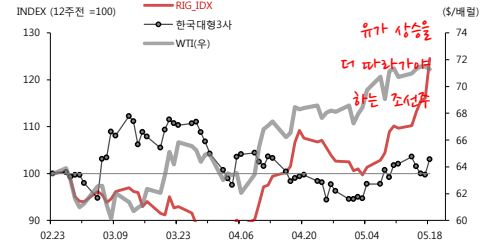
⑤ 한국의 시추선 3척 + 1척을 매입한 Nothern Drilling과 함께 2017년 초부터 책임력 시추선 리세일을 해온, Borr Drilling이 TransOcean의 15기 책임력 일괄 매입 이후, 지난주 Keppel의 5기에 대한 매입도 마무리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의 시추선 손바뀜과 함께 RIG 시장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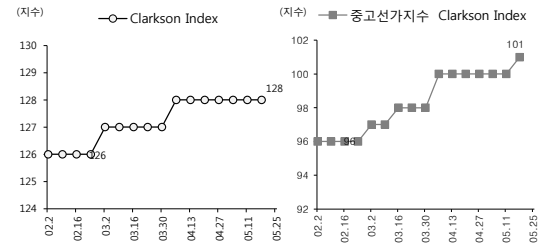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견지합니다. 단기 투자모멘텀은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가 될 것입니다.

대표 차트

유가, RIG PLAYER, BIG3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 벌크 강세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신조선가

대우조선해양의 Hunter 8호선~9호선 옵션 신조선가 7.6% 오른 \$92m
한국 정부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00척 도입 계획 밝힘에...
중고선가지수 1p 올라 101p

시추

▲ Borr Drilling, Keppel의 rig 5기 매입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중고선가지수 1p 올라 101p, 벌크선 신조선가, 중고선가 강세

- 케이프 벌크 신조선가가 \$34m에서 \$40m으로 계단 상승했지만, 신조선가지수는 128p 정세
- 파나막스~한디막스 중고선가 오르며 중고선가지수 1p 상승을 견인

▲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의 Hunter VLCC 3척에 또 따른 옵션 3척에서, 신조선가 상승

- Anne-Fredly의 Hunter는 대우조선해양에 옵션을 행사해 VLCC 3척(4호선~7호선)을 추가 발주했고, 또 추가로 옵션 3척도 확보: 행사 만기는 8월 15일
- 그런데 이 옵션의 신조선가는 scrubber 포함 \$92m으로 앞의 7개 호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함
- 1~4호선은 확정 \$82.8m + scrubber \$2.7m이었고, 5~7호선은 \$82.8m + scrubber \$2.7m으로, 옵션이 행사될 경우 신조선가는 7.6%나 상승하게 되는 것
- 5~7호선은 2020년 5월, 6월, 8월 인도되며, 잔여 옵션의 인도는 2021년 상반기 인도 예정인 것으로 전함
- 한편 Fredly의 Apollo Asset의 신조투자는 Hunter로 이전되었고, Hunter는 7개 선박의 선수금 납입을 위해 \$65m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 중
- >> 지난주 일요일에 올라온 보도여서, 지난주 주보에서는 빠졌습니다.
- >> 신조선가 상승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이번주 꼭지로 사용합니다.



△ 축구장 2배 크기 마라도함 진수

<http://nr.li/Fabq8>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진수식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시추

△ Eni, 호주에서 3개 가스필드 초기 스터디 단계

- Eni는 북호주 Bonaparte basin에서 3개 가스 필드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
- Prometheus-Rubicon 필드: 335bcf 매장량, ichthys와의 tie-in 방안을 포함한 engineering study를 올해 진행
- Penguin 필드: Eni100% 소유
- Blackwood & Evnas Shoal 필드: 8TCF의 대규모 매장량, Petnas 25%, Osaka Gas 10% 지분 보유

▲ Borr Drilling, Keppel의 rig 5기 매입

- 싱가포르 Keppel Offshore & Marine은 다른 고객사가 발주했던 작업력 5기를 노르웨이 Borr Drilling에 총 \$745m에 매각: 척당 \$149m
- 이 5척의 초기 계약금액은 척당 \$205m~\$225m
- 1호선은 4Q19에 인도 예정
- tjstnrma \$228m을 20일 내로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인도 후 5년내 지급 조건

(17년04월) ▲ Borr의 TransOcean 작업력 15기 매입 구조

- 총 13.5억\$ \$1,350m 중
- 1) 건조 중인 5기를 \$860m에 매입 = 기당 \$172m vs 신조선가 \$220m
- TransOcean은 신조선가 \$220m을 20% 할인 매각했고: \$175m~\$176m
- Keppel도 중도 선수금 \$275m을 일괄 수령하고, 기당 \$3m 할인해줌
- 2) 중고선 10기는 \$490m에 매입
- 척당 \$49m에 매입했는데, 해당 작업력의 시장 평가 가격은 척당 \$61.5m!
- Borr Drilling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
- 향후 TransOcean은 Deep-water에 집중할 계획

▶ LNG

△ SK 해운, 파나마 정체로 단기 LNG선 용선 사용

- SK해운은 40일 + 옵션 60일의 최대 5개월짜리 단기 LNG 용선처를 구함: 6월말~7월초부터 운영
- 사측에 따르면, Kogas 화물 운송을 위한 LNG선 운영 계획이 확장된 파나마운하 운영에 따름이었는데
- 파나마 운하 정체로 제때 북미 대륙을 떠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Cape Horn으로 돌아옴에 따라 더 많은 톤마일이 필요했다는 설명

▶ 기타

▲ 현대삼호중공업의 명명식 참여한 Bahri가 밝히는 사우디 신조야드

-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는 2020년부터 가동 예정
- 그러나 IMI에서 향후 Bahri의 모든 신조를 담당할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
- 시장 불황과는 별개로 Bahri는 지속적인 신조 확대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Niovis Shipping Co.→Hyundai Mipo, PTK(50k) 1척

(플래쉬 5월2주) ▲ 그리스 Niovis → 현대미포, MR탱커 1척, \$35m

- 주로 벌크선을 운영해온 그리스 Niovis Shipping이 탱커 시장으로 진입: 최근 삼호중공업의 아프라막스를 리세일로 \$44.3m에 매입했고

- 이번엔 현대미포조선에 50k MR탱커 1척을 발주: 2019년 하반기 인도, 옵션은 없음

>> VLCC가 \$100m → \$81m → \$87m인 것에 비해

>> MR탱커 \$35m이면, 시황이 괜찮았을 때의 수준입니다.

②Hunter Tankers→Daewoo (DSME), TK(300k) 3척

- Anne-Fredly의 Hunter는 대우조선해양에 옵션을 행사해 VLCC 3척(4호선~7호선)을 추가 발주했고, 또 추가로 옵션 3척도 확보: 행사 만기는 8월 15일

- 그런데 이 옵션의 신조선가는 scrubber 포함 \$92m으로 앞의 7개 호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함

- 1~4호선은 확정 \$82.8m + scrubber \$2.7m이었고, 5~7호선은 \$82.8m + scrubber \$2.7m으로, 옵션이 행사될 경우 신조선가는 7.6%나 상승하게 되는 것

- 5~7호선은 2020년 5월, 6월, 8월 인도되며, 잔여 옵션의 인도는 2021년 상반기 인도 예정인 것으로 전함

- 한편 Fredly의 Apollo Asset의 신조투자는 Hunter로 이전되었고, Hunter는 7개 선박의 선수금 납입을 위해 \$65m 규모의 유상 증자를 준비 중

>> 지난주 일요일에 올라온 보도여서, 지난주 주보에서는 빠졌습니다.

>> 신조선가 상승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이번주 꼭지로 사용합니다.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Yang Ming의 12,000teu 컨선 10척, 대만과 일본으로

- Yang Ming의 neo-panamax 컨테이너선 10척의 용선처로 뉴욕 상장사 Costamare와 일본 Shoei Kisen으로 반반씩 결정되었음

- Costamare는 Yangzijiang SB와 확정 5척 + 옵션 5척의 LOI를 이미 체결: Tier-III 스펙에 신조선가는 \$85m, 2020년 하반기 인도

- Shoei는 계열사 Imabari SB에서 건조

- 12,000teu의 용선내용은 최소 5년에 \$30천/일: 동선형의 금융조달비용이 \$20천/일~\$21천/일로 추정되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28천/일이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용선계약으로 평가됨

(04월2주) ▲ Yang Ming의 14척 컨선 발주에서 선사 5개 압축

- Yang Ming은 5개의 용선발주 선사 Shortlist를 추림: SFI(Fredriksen), Shoei Kisen, Zodiac Maritime, Costamare 4개사에 서프라이즈로 홍콩의 Tonghe International Ship Lease가 포함

- Tonghe는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입찰에 참여했는데, Seaspan에서 작년에 은퇴한 Gerr Wang이 배후에 있다는 설

- 11,000teu 확정 5척과 옵션 9척으로 구성: 2020년 중순부터 인도

- 5개 선사들은 한국, 중국 등 조선사들과 협의 중: 중국 야드는 \$90m, 한국 조선사는 \$95m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짐

△ Yang Ming의 2,800-teu feeder도 경합 여전히

- 대만 CSBC, 일본 이마바리, 한국 현대미포조선의 경합 구도 업데이트 동일

△ Kyklades, 성동조선해양에 아프라막스 탱커 5척 계약취소

;-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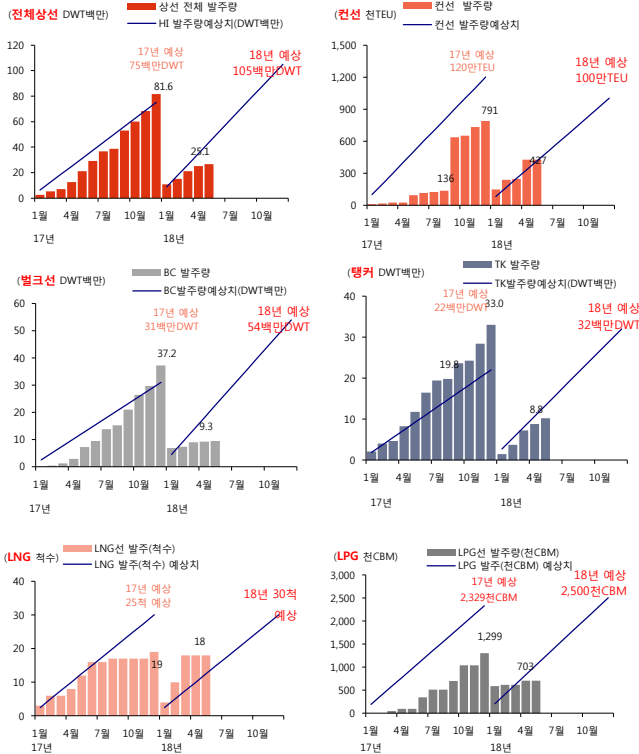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의 RG도 작년 7월에 발급된 바 있음

>> 다른 조선사로 동일 선형 또는 타선형으로의 발주를 기대합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 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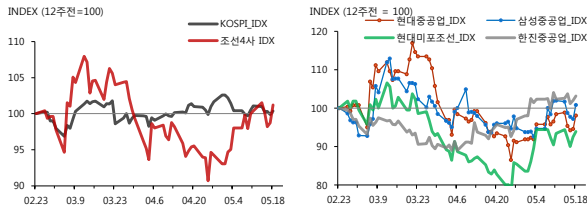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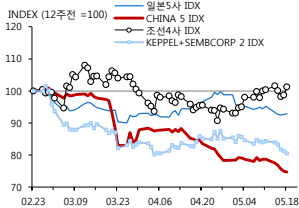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4월3주								
BIG6	Daewoo (DSME)	18.3.30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19	1
	Hyundai HI (Ulsan)	18.2.1	유럽	Cardiff Marine	LNG	174k cu.m.	2020	2
중국	Haitong Offshore Eng	17.12.1	Unknown	Unknown	PTK	14k DWT	2019	1
일본	Sasebo HI	18.1.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5k DWT	2020	2
18년04월4주								
BIG6	Hyundai Mipo	18.4.24	중동	Kuwait Oil Tanker	PTK	48k DWT	2020	4
	Hyundai HI (Ulsan)	18.4.6	일본	JX Ocean	LPG	80k cu.m.	2020	1
국영	Huangpu Wenchong	18.3.30	중국	China Navigation	CONT	3k TEU	2020	4
민영	Jiangsu New YZJ	18.4.20	유럽	Hadley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Zhoushan Changhong	18.1.1	중국	New Yangtze Nav	BULK	64k DWT	2020	2
	Jiangsu Hantong HI	18.4.27	일본	Nisshin Shpg.Co.Ltd.	BULK	64k DWT	2019~2020	3
일본	Shitanoe Zosen	18.4.20	Unknown	Unknown	LPG	5k cu.m.	2020	1
	Kegoya Dock	18.4.25	아시아	Chelsea Logistics	FERRY		2019~2020	2
18년05월1주								
민영	Jinling Shipyard	18.4.27	유럽	Grimaldi Group	RORO	8k Lane m.	2020	3
				Finnlines Plc	RORO	8k Lane m.	2020	3
18년05월2주								
BIG6	Hyundai HI (Ulsan)	18.4.27	유럽	Kyklades Maritime	TK	319k DWT	2020	2
		18.4.17	유럽	Zodiac Maritime	CONT	14k TEU	2019~2020	4
한국	Samkang SB & Conv	18.5.3	Unknown	Unknown	TK	113k DWT	2020	4
중국	Dalian Shipbuilding	18.2.1	유럽	Maersk Tankers	PTK	115k DWT	2022	2
	Beihai Shipyard	18.5.3	중국	CNOOC	FPSO		2020	1
	Jiangsu New YZJ	18.4.27	유럽	Costamare Shipping	CONT	12k TEU	2020~2021	5
	Jinling Shipyard	18.5.4	중국	AVIC Leasing	BULK	82k DWT	2019	2
		18.4.27	유럽	Finnlines Plc	RORO	6k Lane m.	2020~2021	3
	Taizhou Sanfu	18.1.1	중국	Winning Intl	BULK	63k DWT	2020	3
	Taizhou Kouan SB	18.2.1	아시아	Pacific Carriers	BULK	64k DWT	2020	2
	Shandong Huanghai S	18.2.1	한국	Shidao Intl Ferry	FERRY	1k Pass.	2019	1
	CMHI (Jiangsu)	18.4.24	북미	Sunstone Ships Inc	CRUISE	0k Berths	2021	2
	Nantong Xiangyu	18.3.1	일본	Nisshin Shpg.Co.Ltd.	BULK	64k DWT	2021	7
	COSCO HI Yangzhou	18.5.1	유럽	Union Maritime Ltd	BULK	64k DWT	2020	1
일본	Imabari SB Marugame	18.4.27	일본	Shoei Kisen Kaisha	CONT	12k TEU	2020~2021	5
18년05월3주								
BIG6	Hyundai Mipo	18.5.11	Unknown	Niovis Shipping Co.	PTK	50k DWT	2019	1
	Daewoo (DSME)	18.5.15	유럽	Hunter Tankers	TK	300k DWT	2020	3
중국	PaxOcean Zhuhai	18.3.1	아시아	PSA Marine (Pte) Ltd	OFF-기타	4k HP	2019	1
	Haitong Offshore Eng	18.1.1	중국	Unknown Chinese	PTK	8k DWT	2019	1
	Dayang Offshore	18.5.9	한국	Shinsung Shpg. Co.	BULK	3k DWT	2020	3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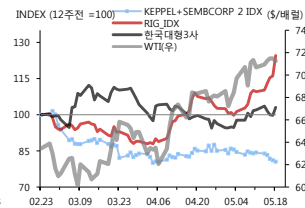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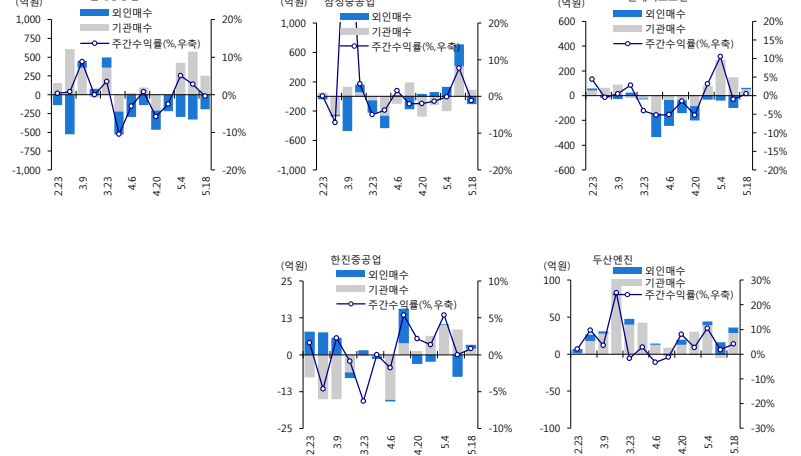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싱가포르 임금 25弗 vs 한국 65弗... 선박수주 가른 조선업 생산성

<http://lnr.li/SOWr4>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제조사인 섹코프마린이 노르웨이 스타토일 FPSO(부유식 원유 생산설비)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실현 불가능한 가격을 써냈기 때문 한국 조선사보다 8000만달러(약 860억원) 저렴한 4억9000만달러를 제시한 섹코프마린은 결국 수주

섹코프마린의 노동자 임금(보험료, 퇴직급여 등 포함한 회사지급액 기준)은 시간당 25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2.6배나 많은 65달러

싱가포르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 5만3053달러로 한국(2만7097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지만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영입하면서 원가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질렀

△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선-해운-금융 상생 생태계 조성할 것"

<http://lnr.li/7JpP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선업과 해운업, 금융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

15일 조선해운업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수주 회복에 따라 조선업 관련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

... 선수금환급보증 및 제작금융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국내 첫 LNG 추진 외항선 8월 발주...정부, 보조금·취득세 등 지원

<http://lnr.li/xoccl>

오는 8월 국내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외항선 2척이 민간 발주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선박 건조가격의 약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취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시행 아울러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시설 구축을 추진

2020년부터 2020년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 검토 중인 선박은 20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한국과 호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

포스코, 남동발전 등 주요화주가 검토 중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조사와 국제협력 등을 지원

▲ 정부 "2025년까지 LNG추진선 100척 도입"

<http://lnr.li/VopzH>

올 8월 한국과 호주를 오가는 20만t급 민간 외항선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30척, 민간 부문에서 70척 등 총 100척의 LNG 추진선을 도입하기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해수부는 2025년까지 공공 30척, 민간 70척 등 총 100척의 LNG 추진선 도입을 목표

내년까지 LNG 추진 관공선 2~3척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올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 시 이자율, 보증료율을 깎아주고, ...

...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으로 바꾸면 선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 취득세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도

▶ 현대중공업 보도

△ 하이투자증권, DGB지주 새출발로 다시 M&A 드라이브

<http://lnr.li/w03XR>

DGB금융지주의 내부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다시 새주인을 맞을 채비를 시작

DGB금융지주는 김태오 회장 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내부 조직쇄신은 물론 외형성장을 위한 잔걸음을 시작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취임 직후 금융당국에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고 있음 김 내정자가 오는 31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고, 이후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은 이르면 7월 중 나올 듯

>> 잘 부탁드립니다.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등 부동산 매각 현황

<http://lnr.li/8hwWf>

삼성중공업이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은 거제 지역의 삼성호텔과 삼성빌리지, 기숙사, 산청군에 있는 산청연수원, 성남 판교의 R&D센터 등 5곳 하지만 판교R&D센터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등 특정한 목적이 아닌 기업에는 매각할 수 없기에 난항

삼성호텔의 경우 매각대금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거제지역의 인구유출, 지역경기 침체, 관광수요 감소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

삼성기숙사와 삼성빌리지의 경우 일부 매각이 진행

올 연말까지 자체 운용비용 1조4500억원을 마련하기로 산업은행과 약속

현재까지 만들어 낸 자구비용을 제외하면 남은 7개월 동안 약 3000억원의 운용비용을 더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수원·당진 등 비 생산시설 부동산 일부는 모두 매각 됐지만 남은 부동산의 경우 규모와 금액이 커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

...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운용비용 1조4500억원 중 일부는 부동산 매각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수급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34% ↑ ...드릴십 매각 영향

<http://lnr.li/i1EL>

1분기 드릴십 매각에 힘입어 작년 1분기보다 33.7% 증가한 29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흑자의 원인으로 2015년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등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구계획을 철저히 이행한 덕분이라고 설명 특히 매각이 성사된 드릴십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남

대우조선은 계약이 해지됐던 드릴십 2척을 최근 시추설비 투자회사인 노던드릴링에 6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매각

해양플랜트를 인도하면서 선주로부터 계약금을 올려받은 것도 영향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한진중공업, 조선 이어 건설부문 공공발주 수혜 기대감

<http://lnr.li/AxMfv>

난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은 최근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2만954㎡ 터에 들어서게 될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연면적 5만1617㎡,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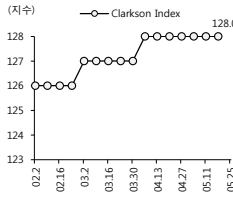
공사금액은 1384억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 서대신 4, 5구역, 범천 4구역 등 정비사업에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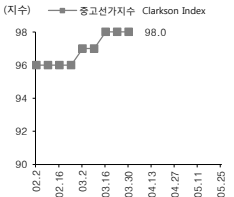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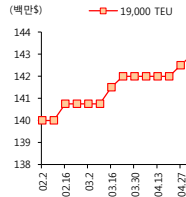
▶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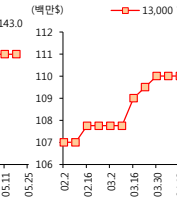
▶ 중고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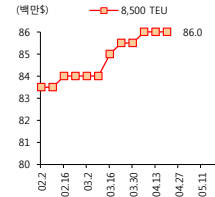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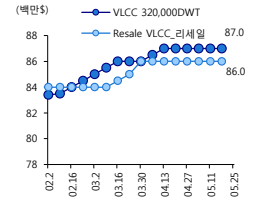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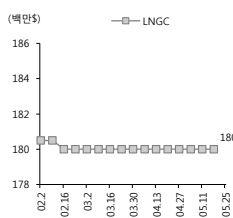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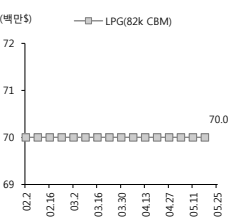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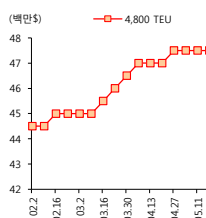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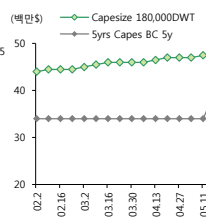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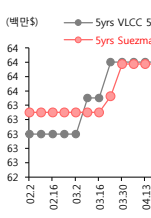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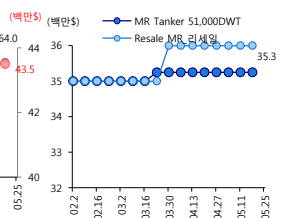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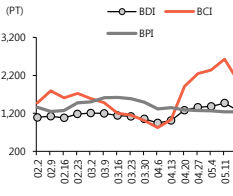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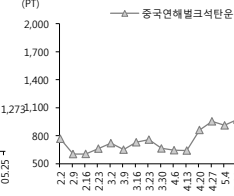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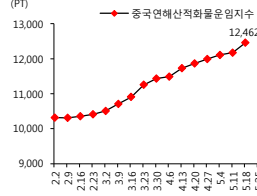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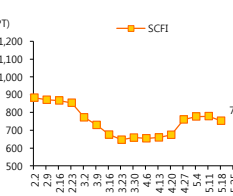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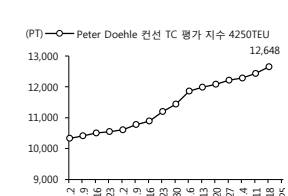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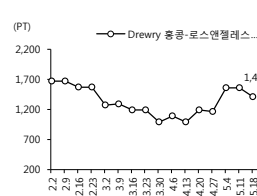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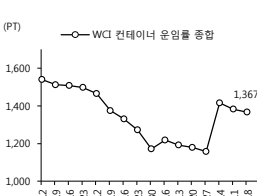
▶ 탱커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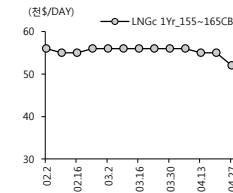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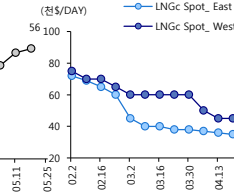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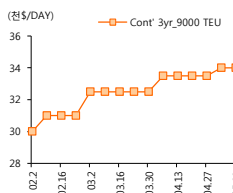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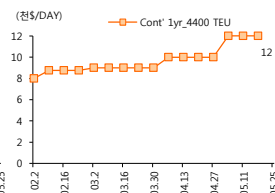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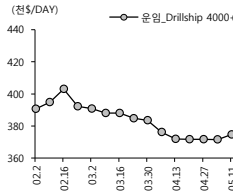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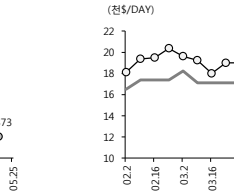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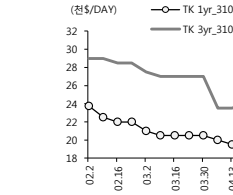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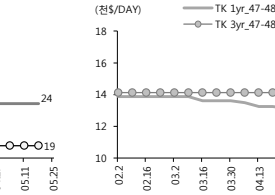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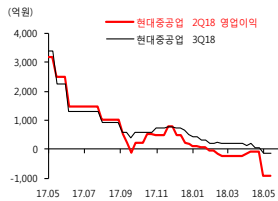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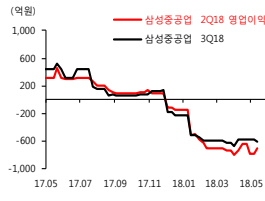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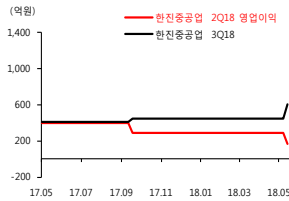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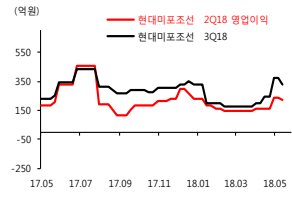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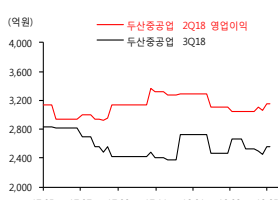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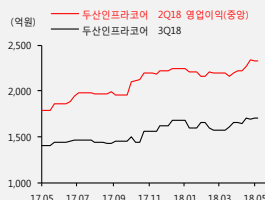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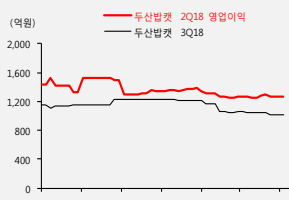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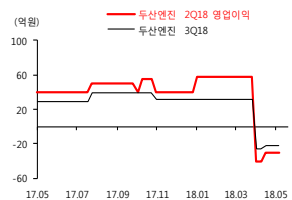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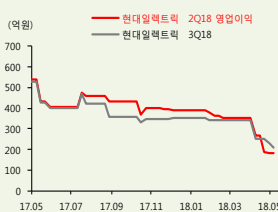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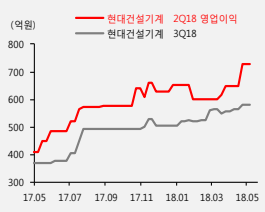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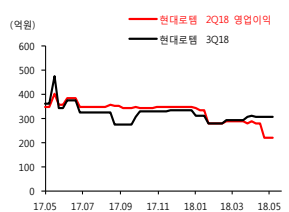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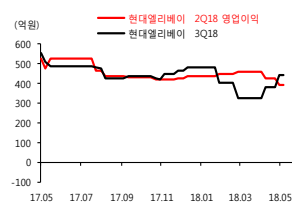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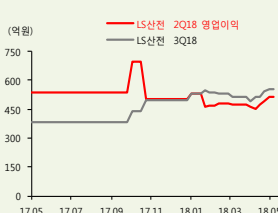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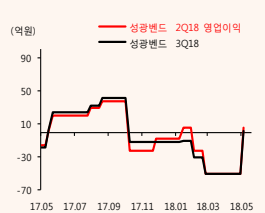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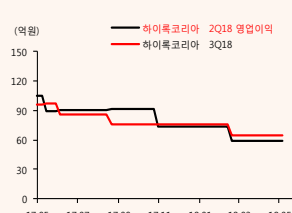
▶성광벤드



▶태광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4.21	18.04.28	18.05.05	18.05.12	18.05.18	18.05.1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222	513	-164	-1,591	-1,940	-1,940	-3,232	-3,232	-3,196	-3,196	적지	적지	-39.9	127,500
	삼성중공업	164	-325	-464	-455	-489	-342	-372	-372	-375	-375	적지	적지	-21.1	7,900
	현대미포조선	4,141	4,031	3,215	2,416	2,416	5,071	5,071	5,071	5,949	5,949	146%	146%	16.9	100,500
	한진중공업	165	29	-74	-509	-223	-223	-223	-223	9	9	흑전	흑전	377.5	3,560
두산	두산중공업	1,420	1,420	1,240	1,227	1,162	943	912	851	851	851	-31%	-27%	24.0	20,400
	두산인프라코어	1,155	1,156	1,204	1,253	1,269	1,430	1,467	1,467	1,500	1,500	20%	18%	7.3	10,950
	두산엔진	104	83	-101	-122	-148	-165	-165	-136	-136	-136	적지	적지	-52.6	7,140
	두산발켓	104	83	-101	-122	-148	-165	-165	-136	-136	-136	적지	적지	-52.6	7,140
기계	현대건설기계	15,398	15,534	15,581	15,128	14,711	14,264	13,757	13,657	13,657	13,657	-10%	-7%	13.0	177,000
	현대일렉트릭	10,781	10,761	9,037	7,642	6,908	6,295	5,181	4,899	4,840	4,840	-37%	-30%	19.3	93,200
	LS산전	4,735	4,803	4,738	4,581	4,462	4,583	4,661	4,858	4,804	4,804	5%	8%	16.5	79,300
	현대엘리베이	5,348	5,603	5,172	3,877	3,073	3,073	3,073	2,558	2,558	2,558	-34%	-17%	42.0	107,500
방산	현대로템	841	830	811	757	637	610	567	567	567	567	-25%	-11%	64.9	36,800
	한국항공우주	1,617	1,604	1,420	1,280	1,227	1,208	1,200	1,160	1,223	1,223	-4%	0%	36.5	44,6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31	1,813	1,511	912	911	891	847	583	635	635	-30%	-30%	46.0	29,250
	LIG넥스원	3,974	3,655	2,942	2,466	2,290	2,168	2,155	2,223	2,223	2,223	-10%	-3%	19.3	42,950
피팅	성광벤드	112	106	-8	-38	-75	-75	-75	-75	-70	-70	적지	적지	-199.5	13,95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0%	0%	46.4	14,000
	하이록코리아	1,912	1,912	1,741	1,413	1,413	1,504	1,504	1,504	1,322	1,322	-6%	-6%	23.4	31,000
	하이록코리아	1,912	1,912	1,741	1,413	1,413	1,504	1,504	1,504	1,322	1,322	-6%	-6%	23.4	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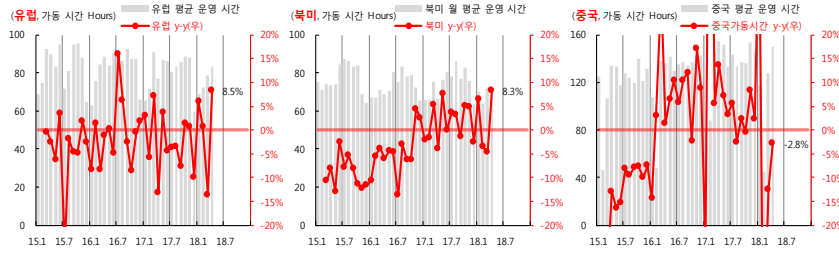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4.21	18.04.28	18.05.05	18.05.12	18.05.18	18.05.18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29,279	230,284	231,574	240,578	172,864	172,864	170,578	170,578	169,511	169,511	-2%	1%	0.8	
	삼성중공업	18,920	19,316	20,345	20,321	19,549	12,278	12,242	12,242	12,386	12,386	-3%	0%	0.6	
	현대미포조선	132,123	129,072	122,714	126,280	117,204	117,204	120,019	120,394	118,112	118,112	5%	4%	0.9	
	한진중공업	8,325	8,773	6,782	6,105	6,105	6,105	6,105	6,105	6,105	6,105	0%	1%	0.6	
두산	두산중공업	30,258	30,258	29,665	28,884	30,124	30,157	30,414	30,546	30,546	30,546	3%	5%	0.7	
	두산인프라코어	11,655	11,744	11,157	10,899	9,981	10,061	9,924	9,840	9,877	9,877	15%	15%	1.1	
	두산엔진	7,893	7,853	7,731	7,612	7,608	7,609	7,609	7,683	7,683	7,683	-2%	0%	0.9	
	두산발켓	7,893	7,853	7,731	7,612	7,608	7,609	7,609	7,683	7,683	7,683	-2%	0%	0.9	
기계	현대건설기계	127,928	128,963	129,058	129,743	134,289	134,289	139,230	139,230	139,230	139,230	10%	11%	1.3	
	현대일렉트릭	120,065	111,365	111,174	106,687	110,027	110,027	108,573	108,257	108,247	108,247	4%	6%	0.9	
	LS산전	43,589	43,668	43,276	42,882	42,585	42,687	42,797	42,909	42,835	42,835	11%	12%	0.0	
	현대엘리베이	46,564	43,206	41,080	36,829	33,177	33,177	33,177	32,217	32,217	32,217	8%	9%	3.3	
방산	현대로템	17,452	17,430	16,973	16,526	16,470	16,470	16,424	16,424	16,424	16,424	3%	8%	2.2	
	한국항공우주	14,393	14,301	13,985	12,950	12,835	12,835	12,835	12,742	12,551	12,551	10%	12%	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506	45,277	43,958	42,105	42,135	42,135	41,698	41,295	41,295	41,295	2%	3%	0.7	
	LIG넥스원	32,935	32,108	30,588	29,179	28,710	28,710	28,710	29,139	29,139	29,139	8%	10%	1.5	
피팅	성광벤드	16,362	16,328	16,235	15,972	15,972	15,972	15,972	15,972	15,995	15,995	0%	1%	0.9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2%	0%	0.8	
	하이록코리아	25,343	25,343	25,479	24,832	24,832	24,832	24,832	24,832	25,123	25,123	5%	7%	1.2	
	하이록코리아	25,343	25,343	25,479	24,832	24,832	24,832	24,832	24,832	25,123	25,123	5%	7%	1.2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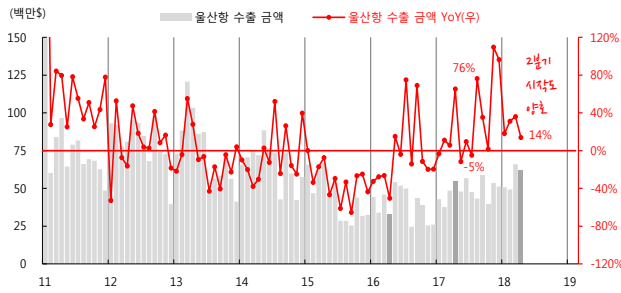


지난주의 그림

▶ 선진시장 가동시간 양호, 중국은 YoY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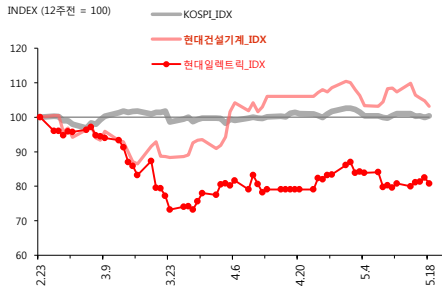


▶ 4월의 울산 건설장비 수출: YoY +14%로 호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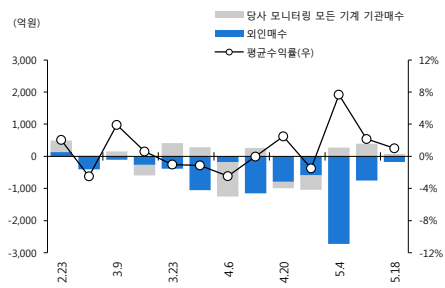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두산밥캣, 실적 호조에 '남는 현금'...차입금 1억弗 조기상환

<http://lnr.ii/vD9z3>

최근 영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차입금 1억달러를 조기에 상환했다고 15일 밝힘

지난 2014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7억달러를 차입해 2024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까지 5차례에 걸쳐 5억2000만달러를 조기 상환

▷ 현대건설기계 분할 후 첫 회사채 발행추진

<http://lnr.ii/ARvU0>

만기를 2년과 3년으로 나눠 1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

이달 28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나선 뒤 오는 6월 4일 발행을 마무리할 계획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천350억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

차환 규모를 감안하면 수요예측 이후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음

한국기업평가는 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A-)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



큰 기계들

▲ 두산 계열 신용도, 오늘 일단 남았다?

<http://lnr.li/DuCZz>

작년까지 두산그룹 전계열사에 부여된 '부정적' 등급전망은 꾸준

두산중공업이 올해 A-에서 BBB+으로 주저앉았고, 두산건설은 투기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더 나빠질 기색은 없음

두산인프라코어(BBB)의 경우 작년 10월 '안정적'으로 돌아선 이후 변화를 모색

두산중공업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이 남한의 7% 수준, 30년 이상된 소형 화력발전소가 전체 90% 이상"이라고 밝힘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발전·인프라 사업의 우선적 추진 가능성을 기대하는 눈치

(주)두산이 '부정적' 꼬리표를 떼낼 지도 주목

두산중공업 등 계열사들에 대한 지원부담이 낮아질 지 여부가 신용도 개선 관건이 될 전망

▲ 두산중공업, SK E&S와 전력수요 관리용 ESS 설비 공급계약

<http://lnr.li/L3DiN>

13일 SK E&S와 '전력수요 관리용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이하 ESS)'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

두산중공업은 자체 보유한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

...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해 올해 9월까지 7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할 예정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와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해 ...

... 공장 단위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추진 할 예정

회사는 지난해 창원본사 리닝센터에 태양광과 ESS를 연계한 자체 발전소를 준공

지난달 26일에는 창원본사 본관과 정문 주차장,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등에 약 8MWh 규모의 ESS를 연계한 3.5MW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들어감

지난 4월27일 두산중공업은 전력기기 분야 중소기업 BSS에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시스템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은 지난해 LA수도전력국(LADWP)으로부터 ...

... 모하비 사막 인근 비컨(Beacon) 태양광 발전소에 공급할 200억원 규모의 ESS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 3일에는 미국 컨슈머스에너지(Consumers Energy)로부터 미시간(Michigan)주 남서쪽 지역 변전소에 공급할 ESS를 수주

두산그리드텍은 미국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사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ESS 통합솔루션 공급 프로젝트 'SHINES'는 ...

...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유력 매체인 GTM(GreenTech Media)로부터 올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에 선정

△ 현대로템 1년만에 회사채 발행...3년물 1천억

<http://lnr.li/JRWthw>

현대로템은 3년 만기로 1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다음 달 1일께 발행할 계획: 지난해 7월 발행 이후 약 1년 만

조달한 자금은 오는 6월 15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900억원을 차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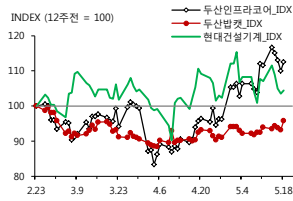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철도 부문의 매출 감소와 원화 강세로 전년보다 85% 급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

다만, 같은 기간 수주 잔고는 16% 증가한 6조9천120원으로 나타나 성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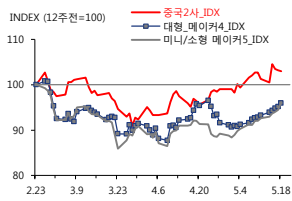


건설기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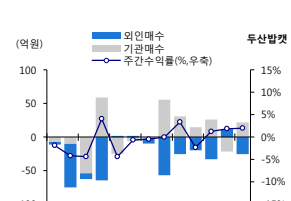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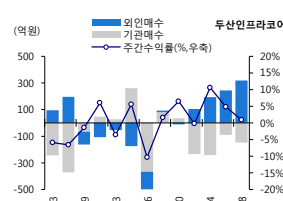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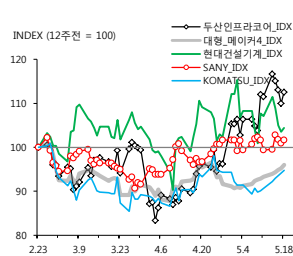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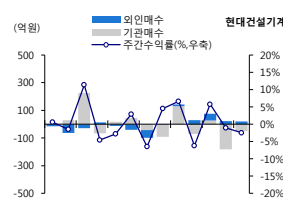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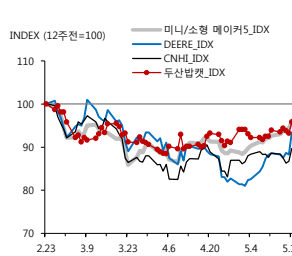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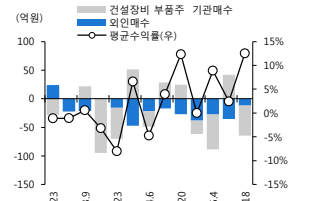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프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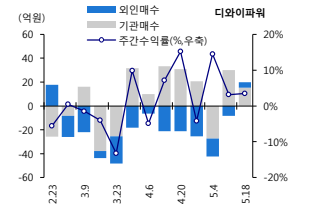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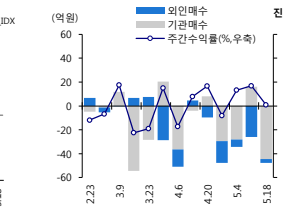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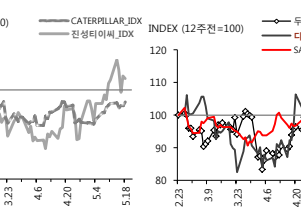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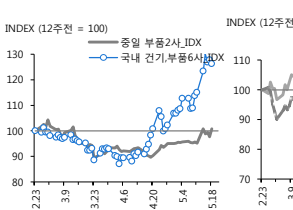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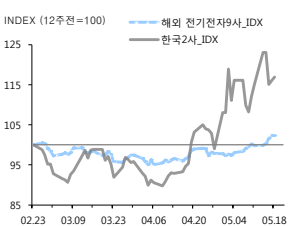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중국, 동일금속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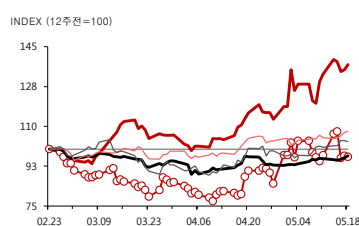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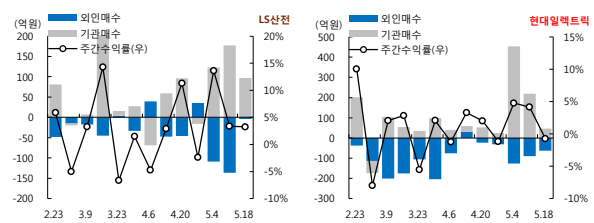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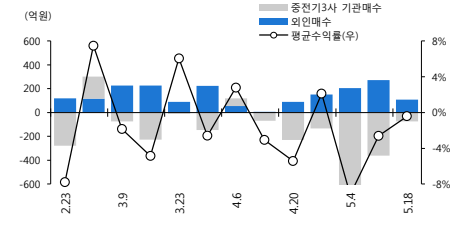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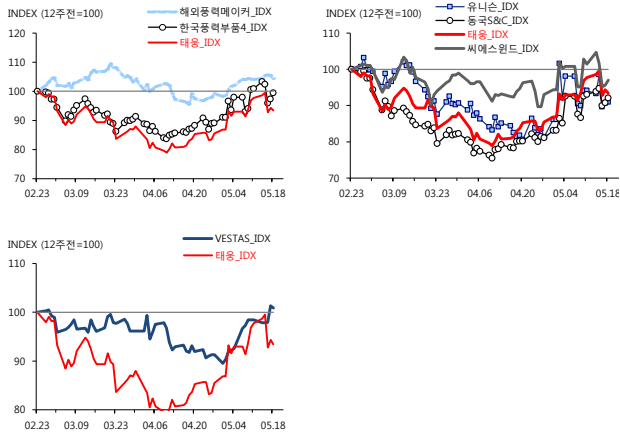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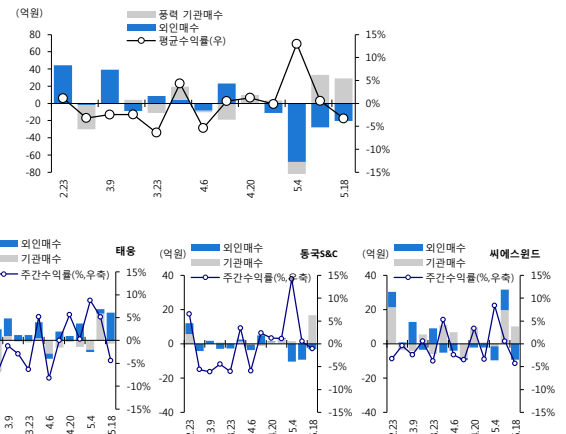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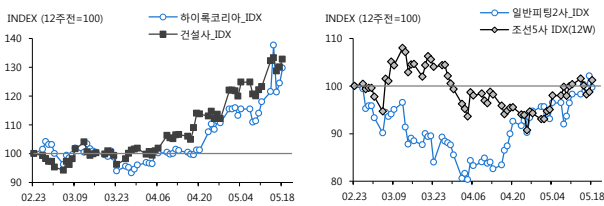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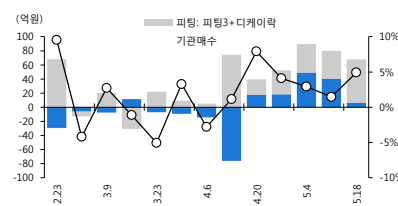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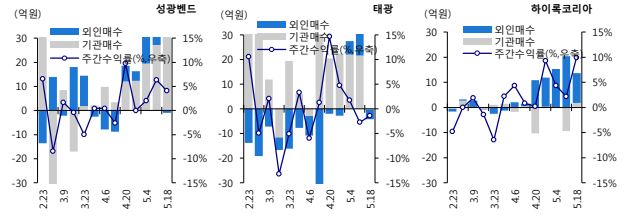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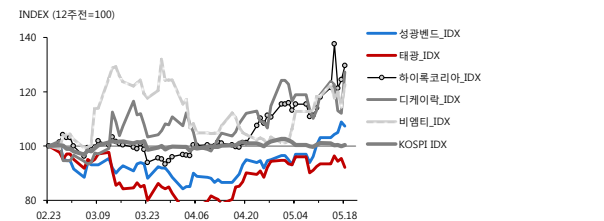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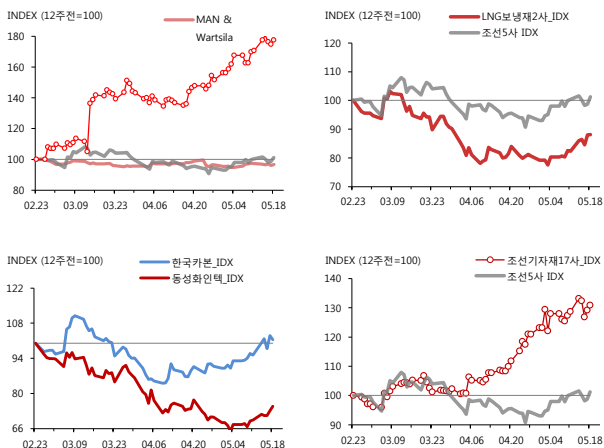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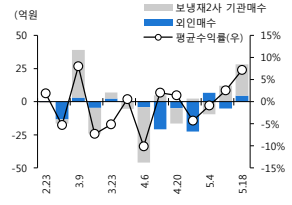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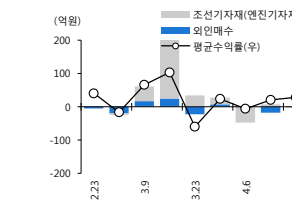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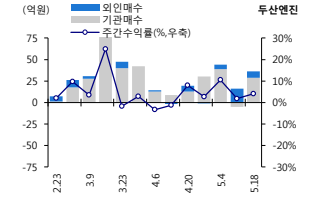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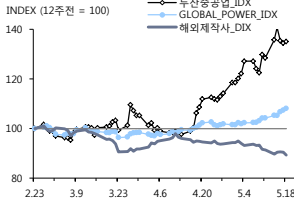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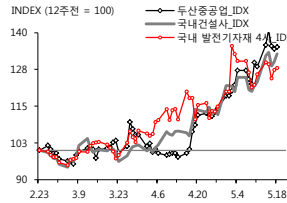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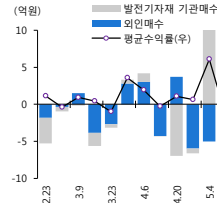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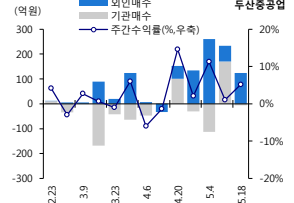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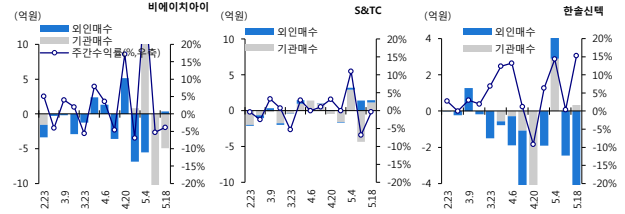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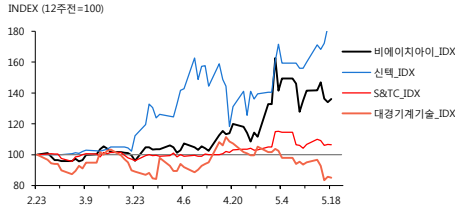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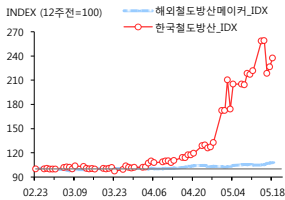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렐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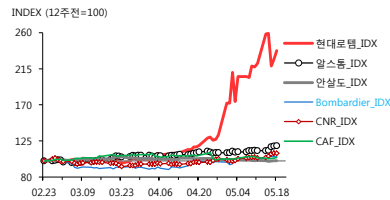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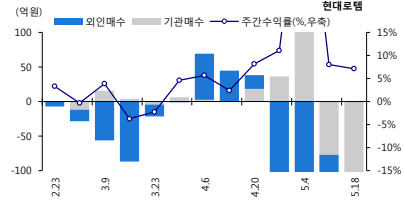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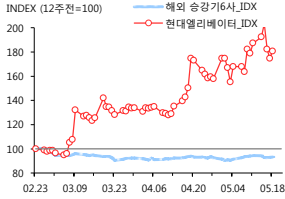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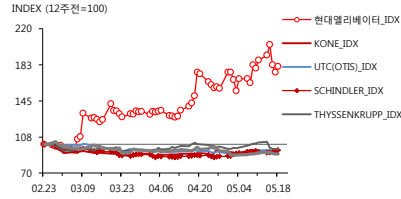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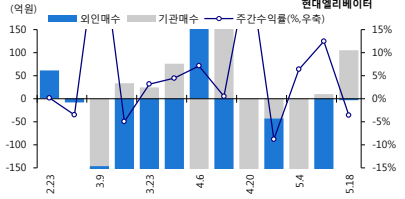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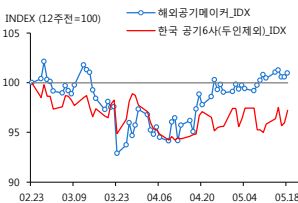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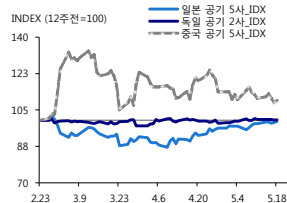


공작기계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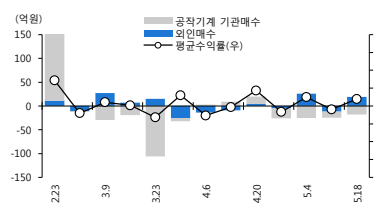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60%	6.40%	-